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37장 세상의 보물과 천국의 보물

『산상설교』 하권 제37장, 인쇄 94~102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19~20

❓ 돈 욕심이 별로 없는 나도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일 수 있을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건 실제로 어떻게 사는 걸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6:19부터 산상설교의 새 단락이 시작된다고 본다. 이 단락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다룬다. 세상의 유혹은 두 가지 모양으로 온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6:19~24), 다른 하나는 염려에 짓눌리는 것이다(6:25~34). 이 설교는 그 가운데 첫째를 다룬다. 그는 '땅의 보물'을 돈 문제로만 좁히지 않는다. 핵심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무엇에 삶 전체를 거는 태도이며, 그 유혹은 교회 안의 지위와 칭찬처럼 교묘한 모양으로도 온다고 경고한다. 이어서 '하늘의 보물'을 누가복음, 디모데전서, 마태복음 25장으로 풀고, 실천의 열쇠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자신을 하늘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로 보는 것, 그리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결산할 청지기로 보는 것이다.

📜 절별 정리

📜 1. 새 단락의 주제: 아버지의 자녀가 세상에서 산다는 것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6:19가 산상설교의 중요한 주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한다. 그 주제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자연이나 우주,

하나로 꼽는다. 주님 자신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도 혼자 있을 때나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나 공격을 받는다. 세상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황폐하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믿음의 싸움이다.

1. 6:19부터 '세상'이라는 새 주제가 시작된다
2. 세상은 장소가 아니라 삶을 보는 눈이다
3. 세상과의 관계는 가장 교묘한 문제다
4. 주님도 세상과 마귀의 시험을 겪으셨다
5.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이니 깨어 있어야 한다

> **마태복음 6:19~20**
> 이 설교의 본문. 부정 명령과 긍정 명령이 한 쌍을 이룬다
>
>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 **마태복음 4:1**
> 주님도 세상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셨다는 사실의 배경
>
>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 **에베소서 6:11**
> 이 싸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
>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 **에베소서 6:12**
> 이 싸움은 혈육이 아니라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
>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 2. 두 가지 유혹, 하나의 원칙, 그리고 수도원이라는 잘못된 길

로이드 존스는 세상의 유혹이 크게 두 모양으로 온다고 정리한다. 첫째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6:19~24가 다룬다. 둘째는 근심과 염려의 영으로, 6:25부터 장 끝까지가 다룬다. 주님은 이 둘이 똑같이 위험하다고 가르치신다. 두 문제 모두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라는 큰 원칙 아래 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규칙이나 규약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한편 세상 염려가 싫어서 세상을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있다.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자가 되거나 암자에서 은둔자로 사는 사람들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 거짓된 견해라고 말한다. 성경이 보여 주는 길은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유혹 하나: 세상을 사랑함(6:19~24)
2. 유혹 둘: 염려에 정복당함(6:25~34)
3. 둘 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한다
4. 규칙 목록으로 줄이면 안 된다
5. 수도원식 도피는 성경에 없는 길이다

> **마태복음 6:24**
>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를 다루는 단락의 끝
>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마태복음 6:25**
> 염려라는 두 번째 유혹을 다루는 단락의 시작
>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 3. 명령의 구조: 원칙을 주시고 이유까지 알려 주시다

로이드 존스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식에 주목한다. 주님은 먼저 하나의 큰 원칙을 명령으로 주신다. 그다음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줄 논거까지 공급하신다. “땅에 쌓아 두지 말라”와 “하늘에 쌓아 두라”는 부정과 긍정 두 면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권면이다. 좀과 동록과 도둑 이야기는 그 이유와 설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다. 심판 날에 보상이 빈약하더라도 누구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경고다.

1. 명령이면서 동시에 권면이다
2. 부정과 긍정 두 면이 하나의 권면이다
3. 좀·동록·도둑은 명령의 이유다
4.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핑계가 없다
5. 심판 날의 보상과 연결된 말씀이다

> **마태복음 6:19**
> 땅의 보물은 썩고 녹슬고 도둑맞는다는 이유
>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 **마태복음 6:20**
> 하늘의 보물은 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유
>
>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 4. '땅의 보물'이란 무엇인가: 돈보다 큰 문제

로이드 존스는 먼저 두 가지 흔한 오해를 걷어 낸다. 이 말씀을 돈 문제로만 읽는 것,

관심을 두시는 것은 소유물 자체가 아니라 소유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부를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 잘못되는 것은 부와 맺는 관계다. 결국 문제는 주된 만족을 이 세상에만 속한 것에서 얻는 것, 포부와 관심과 소망을 이 세상에 가두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 권면이 부자만큼 필요하다. 보물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일 수 있다. 금전 가치는 작아도 내가 가진 은사일 수 있고, 자랑스러운 집과 가정일 수도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내게 전부라면 그것이 곧 보물이다. 그 목록은 명예, 지위, 신분처럼 이생에서 끝나 버리는 모든 것으로 끝없이 이어진다.

1. 돈만의 문제도, 부자만의 문제도 아니다
2. 소유가 아니라 소유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다
3. 부 자체는 악하지 않다
4. 내게 '전부'인 것이 곧 내 보물이다
5. 가족, 은사, 집, 명예, 지위도 보물이 될 수 있다

>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소유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 5. 땅에 보물을 쌓는 교묘한 방식: 지위와 칭찬

그러면 사람은 땅에 보물을 어떻게 쌓는가? 가장 단순한 모습은 부를 부로서 모으고 쌓아 두는 삶이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가 더 경계하는 것은 돈에는 관심이 없지만 결국 세속적인 것에 붙들리는 경우다. 마귀가 물질적인 뇌물을 내밀면 비웃을 사람도 있다. 그런데 마귀가 기독교 사역과 관련된 높은 자리를 내밀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해 받아들인다. 그러면 곧 그의 영적 권위와 능력이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는 교회 안의 승진이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끝없는 해를 끼쳐 왔다고 말한다. 그들의 관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선량한 사람들조차 원수가 될 수 있다. 교인들의 칭찬과 격려가 설교자를 하나님의 사자로서 거의 파멸시키기도 한다.

1. 돈에 초연해도 지위에는 넘어갈 수 있다
2. 마귀는 사역의 높은 자리로도 유혹한다
3. 교회 안의 승진도 영적 능력을 빼앗을 수 있다
4.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나'로 돌아선다
5. 사람들의 칭찬도 땅의 보물이 된다

“교인들로 말미암아 파멸당한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 6. '하늘의 보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쌓는가

로이드 존스는 긍정 명령을 풀기 위해 여러 본문을 함께 읽는다.

-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님은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목적에 철저하다고 하시며,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 세상의 재물을 지금 사용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 줄 것이다.
- 바울은 디모데전서 6:17~19에서 같은 원리를 설명한다. 부한 자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누어 주며 선한 일을 해서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야 한다.
-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일이 곧 자기에게 한 일이라고 하신다.
- 부자 관리와의 만남(누가복음 18장)은 부에 기대는 마음과 치명적인 자신감이 심령의 가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마음이다.

실천의 출발점은 삶과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올바른 견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께로,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는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살았다. 모세는 애굽 궁전을 버리고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는데, 상 주심을

그리스도인은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빌려 쓰는 관리인이다”라고 말하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산할 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까?”를 묻는다. 그는 매일 이렇게 물으라고 권한다. “나는 오늘도 본향을 향해 하루 더 나아가 장막을 치고 있는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자녀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안전하게 쌓는다.

1. 재물을 지금 선하게 써서 영원을 준비한다
2.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주께 한 일이다
3. 자신을 하늘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로 본다
4.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다
5.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결산할 날을 기억한다

> **누가복음 16:8~9**
>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재물을 영원을 위해 쓰는 원리
>
>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 **디모데전서 6:17~19**
> 나눔과 선한 일로 장래의 좋은 터를 쌓는다는 바울의 해석
>
>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 **마태복음 25:37~40**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8:24~25

부에 기대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심령의 가난을 막는다

24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27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같은 원리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히브리서 11:10, 13, 16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나그네로서 하늘의 성과 본향을 바라보았다

히브리서 11: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16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듯 행했다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고린도전서 3:21~23

모든 것이 우리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다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 오해와 반론

📖 용어

세상

성경에서는 자연이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가짐을 뜻한다.

땅의 보물

이 세상에서 끝나 버리는 것 가운데 내게 '전부'가 된 것이다. 돈, 가족, 은사, 집, 명예, 지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하늘의 보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분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써서 영원을 위해 쌓아 두는 것이다.

청지기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나중에 결산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유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수도원주의
세상을 피해 수도원이나 은둔지로 물러나는 것을 거룩함의 길로 여기는 태도다.

전신갑주
영적 싸움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무장이다(에베소서 6장).

심령의 가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마음으로, 팔복의 첫째 복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마태복음 6:19부터는 아버지의 자녀가 '세상'과 맺는 관계를 다루며, 첫째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 땅의 보물은 돈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가운데 내게 전부가 된 모든 것이다. 지위와 칭찬은 특히 교묘하다.
- 해법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살며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 하늘에 보물을 쌓는 길은 자신을 나그네로, 소유를 하나님께 결산할 청지기의 몫으로 보고 선하게 쓰는 것이다.
-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가올 영광을 실제로 믿고 사모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